

AUTHOR 김성욱

TITLE 칼빈의 예정론

IN 개혁신학

Vol.15 No.- (2004), 61-73.

칼빈의 예정론

- 에베소1장과 로마서9장 주석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his Interpretation of
Ephesians 1 and Romans 9

번역:김 성 욱

(역사신학)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I. 대략적 개요II. 에베소서 1:4-9III. 롬 9:6-20IV. 에베소서 1장과 로마서 9장의 비교V. 칼빈의 두가지 예정론 |
|---|

칼빈의 성경주석에 관한 강의의 마지막 주제로 선택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 주제는 언제나 특별하게 여겨진다.

I. 대략적 개요

1.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칼빈이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란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한 구원으로 축

은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하였다(이중예정론)라고 가르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은 믿음을 위하여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1559년의 기독교강요 III에서 먼저 믿음(1-2장)을 취급하고 나중해야 예정(21-24장)을 다루고 있다. 기독교강요 제III권의 끝부분에 있다는 위치적인 근거로 볼 때, 이 예정의 문제는 칼빈의 "중심적 교리"가 아니며, 오히려 믿음에 대한 변증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려준다.(참고 종교개혁자인 베자의 경우에는 예정론을 그의 교리서에서 제일 먼저 취급한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칼빈은 비판을 가한다. 그는 이것을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2. 칼빈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의로 예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입장은 그 동안의 연구 가운데 아직까지도 확고한 기반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노이저 교수님은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즉 칼빈이 표면상 두 가지의 차이가 나는 예정을 주장하였는데, 그럼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559년의 기독교 강요의 21권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영원한 선택: 하나님께서는 선택에 의해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하셨다(선택과 유기)"¹⁾ 이에 반하여 1552년에 쓴 더 방대한 글인 "영원한 예정(De aeterna praedestination)"에 있는 제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에 의해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선택하셨고, 다른 이들은 멸망 가운데 내어두셨다"(단일예정).²⁾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기독교강요는 멸망에 이르는 예정을 가르치는데 반하여, "영원한 예정"에서는 멸망으로의 예정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 "영원한 예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1) OS IV, 368, Z.31

2)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qua in salutem alios ex hominibus elegit, alios suo exitio reliquit. COR III, vol 1.

“reliquit”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의 멸망에 “내어 두셨다” 혹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선택에 있어서 “간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타락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을 선택하시고 다른 이들은 그들의 본래적인 상태에 그냥 두셨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기독교강요에서는 이중예정을 가르치지만, “영원한 예정”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단일 선택을 이야기한다. 칼빈은 결국 두 가지 차이가 나는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여기서는 칼빈이 1551년에 행한 예정에 관한 설교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것은 1559년의 기독교 강요와는 그 입장이 대치된다. 이 설교는 Pighius에 반대하는 논쟁적인 글인 “영원한 예정”과도 다르게 설명하며, 역시 성경을 추론하지만 변증적인 성격을 띤 1559년의 기독교 강요와도 다르게 목회자로서의 칼빈이 설교하고 있는 것임을 잘 보여 준다. 분명한 것은 칼빈이 1551년 12월 18일 볼세스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 후에 행한 하나의 교리적인 설교란 사실이다.³⁾ 이런 교리적인 의미에서는 기독교강요와 가깝다. 하지만 두 경우에 있어서 청중과 독자가 서로 다르다. 설교는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그 대상을 삼고 있지만, 기독교강요는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칼빈은 에베소서 1장과 로마서 9장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가? 기독교 강요 3권22장에서 그 성경구절들이 해석되고 있다.

3) 여기서 다루고 있는 칼빈의 1551년 설교는 CO 8,85-140; vgl. R.Peter(+), J.-Fr. Gilmont, Bibliotheca Calviniana. Les oeuvres de Jean Calvin publiées au XVIe siècle, vol.2, Genève 1994, 62/6에 있다. 그리고 프랑스어 텍스트 CO 8,89-119 (줄번호와 함께)에서 인용되었다. 그리고 Chr. Link의 독일어 번역에서 취하였는데, 그것은 Calvin Studienausgabe Bd.4, Neu2002, S.94-149에 나타난다. 그리고 영어로 된 칼빈의 설교는 남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공용 화란어에서 번역되었으며 부록에 다른 형태로 되어있다. Hervormde Theologiese Studies, Jg.54, Nr.1 und 2, Pretoria 1998, 60-103.

II. 에베소서 1:4-9

선택에 관한 핵심적인 성경구절에 대한 해석은 기독교강요 III권22장1-3절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칼빈은 설교에서 이 주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한 편으로는 인간의 행위와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국면을 바울 사도가 비유로 설정한 것을 볼 수 있다.”⁴⁾ 그 후에 선택교리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단지 “불행과 결핍”만 보신다(95,23).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얼마만을 선택하신다 하더라도(95,33f)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까닭에 칼빈은 ‘하나님의 부분구속(어떤 이들만 구속함)이 불의하다’라는 이외에 부딪힌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두셨다’라는 부분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노이저교수님의 주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행하신 당신의 결정(엡1:4,9)이,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였음을 선포하는 것과 일치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결정을 “그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한다”(95,20)는 것으로 이해한다. 유기에 관하여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였다”(엡1,4)라는 문장은 구원론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으로 해석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그의 아들 안에서”(엡1:6)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95,50). 칼빈은 다시금 선택의 결정을 은혜라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의 은혜로우신 자비하심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하고 있는 것이다.”(96,14ff)

기독교강요 III,22,1-3에서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이런 목회적인 해석이 빠져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안에서 우리에게 향하

4) CO 8,95, Z.12ff. 앞으로는 page와 줄번호를 기록할 것임.

하나님의 예정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에 대한 주석에서도 분명하게 목회적 해석이 생략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에서는 기독교적 입장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에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secundum propositum voluntatis suae) 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엨1:5,9)(OS IV, 381,16.18).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판단인 것이다. “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되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라는 대답을 제시할 것이다”(강요III,22,2; OS IV,381,34f.).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그의 판단이며 그의 의향이고 그의 의지인 것이다.⁵⁾

그러나 설교에서는 칼빈이 “하나님의 결단”에 관하여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있는 칼빈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알려져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에 납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창세 전에 그의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였기에 그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아는 것이다.”(96,34-36) 칼빈은 인간적인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납득시키고자 하였다. 기독교강요에 있는 칼빈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창세 전에 하나님 홀로(전적으로) 인간의 구속과 불구속을 결정하셨다.”

III. 롬9:6-20

칼빈은 설교에서 “약속의 자녀들”(롬 9:8)로부터 즉시 “은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다.(100,46) 여기에 구속의 부분성에 대

5) 비교 기독교 강요 III,21,1.5, 22,7, 23,4, 24,17; OS IV, 369,29; 375,32; 388,13; 398,21; 431,23.

한 질문이 제기된다(부분구속이 타당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변증으로 서술한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의 이름 안에서 구속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들 전부가 진실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은당치 않다. 바울사도는 모든 자가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그것을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니다. 그대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이 깃든 그들만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100,54ff.) 그러므로 모두가 부름받았으나, 모두가 선택된 것은 아니다.

로마서 9장에 대한 주석은 기독교강요 III,22,4-6에 있으며 “로마서에서 바울사도는 이 상태에 관하여 깊게 사교하였으며 그것을 넓고 자세하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주석을 시작한다. 그 후에 칼빈은 야곱의 선택과 에서에 대한 유기를 강조한다.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는 의문이다.”

하나님의 예지(praescientia)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을 택하였다는 반대자의 입장을 칼빈은 결정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는 바울을 증인으로 세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11절 이하에 언급되는데, “..... 하나님의 결정은 업적의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자유의 의지에 인한 것이며 전적으로 부르신 이의 은혜에 의해서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III,22에서 단지 로마서9장의 앞부분만 취급한다. 로마서9:14-29에 나타나는 바울의 과격한 표현들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 “토기장이가 토기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 - “진노의 그릇” 그리고 등등)에 관하여서는 여기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IV. 에베소서 1장과 로마서9장의 비교

만약에 칼빈의 설교에 나타나는 에베소서1장과 기독교강요에 나타나

는 에베소서1장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두 텍스트가 각각 서로 다른 구절에 주된 초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로마서9:6-13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사건은 두 텍스트에서 거의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강조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1. 두 텍스트는 시작부터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설교는 '선택은 뒤 따르는 믿음에 달려있다' 라는 볼세스의 입장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선택은 믿음에 선행한다(96.13f.; 97,48; 99,40f., 96,31)' 혹은 '믿음이란 하나의 높은 그리고 감추어진 근원에 의거한다(94,18f.; 95,51f.)' 라는 주장으로 볼세스에 반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이런 볼세스에 대한 반대적 입장은 예정에 관한 성경구절들이 논의 되어지는 첫째부분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와 반하여 기독교강요는 하나님의 예지(praescientia Dei)에 관한 반대적 입장 곧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믿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선택 하셨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변증하는 것이다. 기독교강요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칼빈의 논박은 무엇보다 먼저 성경구절을 다루는 가운데 나타난다(강요III,22,1-4, 8-9, 23,6-7).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설교에서 볼세스를 반박한 것이나 기독교강요에서 "선택을 비방하는 자"⁶⁾에 대하여 논박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동일하다. 왜냐하면 선택에 대한 믿음의 우위를 말하는 것(볼세스의 입장도)이나 하나님의 선택적 결정은 미래적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고려에 의한다는 것(카톨릭적인 반대입장)은 사실 전적으로 동일한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인 것이다. 한 입장은 인간의 믿음에서 출발하고, 다른 하나는 시간 전의 하나님의 활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당연히 칼빈은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예지란 입장에 대하여 씩씩한다. (97,1ff.; 102, 17ff.; 110,49ff.).

6) 기독교강요 III,22,10; OS IV, 390, Z.30. 설교에서는 그들을 "Sorbonnisten"과 "papistische Theologen"라고 말한다; CO 8.110, Z.47; 102, Z.17.

2.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문제제기들이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 에베소서 1장과 로마서9장에 대한 성경주석의 차이를 아직 해명하고 있지는 않다. 설교에서는 칼빈이 “창세 전에”(엡1:4)란 단어는 그냥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강조하였는데, 이 단어는 놀랍게도 기독교강요에서는 무관심하게 남겨져 있다. 칼빈의 예정론이 기독교론적인 관심을 결여한다고 비판받는다면, 이 차이점이 그 중요한 근거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설교는 6절에 나타나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은혜로운 행위에 주된 초점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강요는 이 중요한 주제를 매우 짧게 취급하고 있다.

3. 에베소서1장의 텍스트는 로마서 9장과는 다른 맥락에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는 여기서 독자에게 온전히 개인적으로 말한다. 설교는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로마서 9장에서도 이러한 “우리”라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강요에서는 이런 우리라는 가르치는 형태가 깨진다. 이런 직접적인 호칭이 내용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난다.

4. 설교의 두 번째 부분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11개의 이의들에 대하여 변증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야겠다. 그것들은 먼저 온건한 입장들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은 반대자들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뜻에 따라 특정한 사람만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오 나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간주할까 두려워한다.[롬 9:18a]” (104,55ff). 혹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한다면 이런 교리를 온전히 잘 피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일부만 선택하셨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믿음과 회개에 대하여 설교할 수 있다면.” (106,40ff) 기타 등등. 마찬가지로 기독교강요III,23에서는 이러한 이의들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다.

결국 이 이의들은 주목할 만한 요약으로 끝난다: 결국 이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설명한 모든 것을 요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

실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어울릴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배하지 못한다. 그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즉 전체 아담의 후손들에게 내려진 전체적인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빼어내셔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기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배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기자들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면, 그들 가운데 우리 자신이 있음을 보고 배워 고백하기까지 가야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당신이 아버지로서의 자비를 유효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바로 그와 동일한 상태였을 것이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그들로부터 분리해낼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탁월하게 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시편 8:6f). 만약 신자들이 바로 이 지점까지 오지 못한다면, 이미 언급한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것이다.(111,55ff.)

(설교에서는) 유기자들에 대한 연대감 곧 그들에 대한 동정심이 현저하게 드러나지만, 기독교강요에서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본질상 유기자들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은 칼빈이 단지 은혜로운 선택을 말하려는 것이지, 결코 이중예정을 말한 것이 아니다; 유기자들이란 선택되지 않은 자들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5. 설교에서는 종말론적인 입장도 성경적인 증거에 해당하며, 이런 안목을 가지고 칼빈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형용할 수 없음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두 번째 이의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날에야 비로서 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리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홉 번째 이의에 대하여 칼빈은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변증하는데, 그 최후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유기자들에 대하여서도 의롭게 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

며”(고전13:12)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첫째 이의, 곧 불세스의 입장으로 믿음의 선택보다 절대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반대한다: 믿음이란 인식가능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날에야 비로소 이것을 밝히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지 우리는 아직도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강요에서는 종말론적 안목이 빠져있다. 거기에서는 구속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최후의 심판 날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의지 안에 감추어져 있으나 교회에게 감추어진 것은 아니다.(기독교강요III,22,4 등등) 기독교강요에 있는 칼빈의 논의는 근거와 영향, 수여자와 수용자 원인과 결과- 그 밖의 것들은 그의 적대자 Pighius와 마찬가지로-라는 범주로 한정된다.(기독교 강요의 관심은 창세 전: 과거) 그는 설교에서 이에 반하여 최후의 심판날에 있을 모든 의문 해결에 교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설교의 관심은 종말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관심: 미래).

6. 결론: 설교와 기독교강요의 비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기독교강요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그 동안은 칼빈하면 언제나 기독교 강요만을 염두에 두고 연구 해온 분위기에 대한 반성). 1)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기독교론적 확고함의 부재가 바로 그 약점이다. 이러한 약점은 설교를 통하여 극복되어진다. 2) 기독교강요는 예정교리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관점이 빠져있다. 3) 유기에 관하여서는 설교에서 보여주었듯이 개인적인 놀람(즉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직접적인 적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V. 칼빈의 두가지 예정론

예정에 관한 서로 다른 두가지 정의는 처음에 지적되었다. 첫 번째 것은 기독교강요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에 어떤 이는

구속으로 예정하시고 다른 이들은 멸망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이다. “영원한 예정(De aeterna praedestinatione)”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선택하시고 다른 이들은 그냥 두셨다고 설명하였다. 기독교강요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1551년의 설교에서는 칼빈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주제는 “선택, 그 선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속으로 내정했다”(93,25f)이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도(엡1:9) “우리를 그의 편으로 이끄셨을 때 나타내셨던 결정의지”로 표현한다. 영벌과 유기는 설교의 첫째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칼빈은 “불신자들”(96:7; 96, 44f.)에 관하여 논하지, 유기자들에 관하여 논하지는 않는다. 영벌에 관하여 불가피하게 언급해야 하는 로마서9장을 이야기 할 때마저도, 이 개념을 우회적으로 말한다: “리브가가 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이보다 더 사랑을 받았다.” (101,53f.; 102,4-6). 야곱을 “에서 위에 세웠으며”(constitué au dessus d'Esau; 102,6f.), “그는 선택되었고 유업을 이을 자로 정해졌으나, 에서는 그 유업으로부터 제외되었다.”(destitué; 102,13f.)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표현은 영원한 예정이란 글의 제목 “멸망에 버려둔다”와 상응한다. 칼빈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은 한계가 있다는 두 번째의 예정론을 대변한다. 만약 칼빈이 “유기”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는 조심스럽게 다음의 구조로 말한다: 로마서9장에서 바울은 “에서는 버림받았고 야곱은 선택되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103,10f).

예정론교리에 관한 이의를 다루고 있는 설교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유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첫 번째 이의는 하나님께서 단지 몇몇 사람만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칼빈은 이중 선택에 관한 논의에서는 벗어난다. 단7:10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 그 책이 펼쳐질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써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를 버렸는지 알게 될 것이다”(105,49ff). 그는 영원한 결정(decretum aeternum)을 말하는 대신 최후의 날에 대하여 주위를 환기시킨다.

여섯 번째 이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유기자들에게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도 유기하셨다.” 그리고 칼빈은 그것에 대하여 “선택된 자가 있으면 당연히 남겨진 자도 있다(의역)”(109,35ff)라고 설명한다. 논리적 귀결에 의하면 결국 하나님의 유기 역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그의 전능하심을 증명함으로써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가 멸망받은 것으로 증명한다. 우리 전부는 다 유기된 자들이다(109,42ff: 110,8ff.). 언명의 주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선택하시고, 그러나 다른 이들은 버림받은 속에 있다”(기타 등등) 라는 문장에서 앞부분에서만 하나님이 행동의 주체이다.(109,42f.) 그들은 전부 아담의 후손으로 버림받은 자이다. 따라서 단지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지 유기에 관한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여덟 번째의 이의는 주의를 요한다: “유기자들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확실해 해야한다; 그들이 내정되거나 선택받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다”(111,35ff.). 우선 보기에는 이 말이 마치 칼빈이 첫 번째 유형인 이중예정을 가르치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하셨다는 것. 그러나 유기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겨진 자들(reiecti)이란 분명하게 말하자면 선택되지 않은 자들(non electi)이다. 칼빈이 단지 논리적 귀결 때문에 다시금 유기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국 요약하자면 유기된 자들이란 영원 전에 예정함을 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상실된 자들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자비를 효력있게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유기된 자들이다.(112,11ff) 그는 자신의 가르침의 두 번째 유형을 분명하게 대변한다.

유기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기자란 우선 선택되지 않은 자들이다. 칼빈은 논리적 귀결이나 증명을 해야할 경우에만, 이중예정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이의 곧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결정하지 않으셨

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신의 결정에서 그것을 정하였다”(110,23f., 28f.)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은 인간의 타락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개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 칼빈은 은혜로운 선택과 이중예정이라는, 시작이 다른 두가지 예정론을 가르친다. 그러나 이 두 가르침이 서로 상치되지 않는 것은 이중정정이 은혜로운 선택으로 포함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는 서로를 위하여 취해졌으나, 전혀 다른 신학적 사고를 가지며 역시 다르게 성경적으로 주해되는 것이다. 칼빈은 설교에서 오직 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만 가르친다.

기독교 강요도 이 두 가지 교훈을 대변하는지는 연구되어야 했다. 기독교강요III,21,7에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하고 변경이 없는 결정에서 어떤 자들은 구속으로 그리고 다른 이들은 멸망을 맺가로(devovere) 주기로 한번 확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름에 관한 인식과 성령에 의한 성화에서 유기자들을 제외시킴으로 어떠한 판결이 그들을 기다리는지를 밝히고 있다.”(OS IV,378,32-34: 379,8-10)